



천년의 빛... 고려청자의 강진

강 옥
자유기고가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군(康津郡)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해 있다. 해남군과 장흥군 사이에 놓인 이 군은 북쪽에 높이 809 미터의 월출산이 영암군과 자연의 울타리를 이루고 남쪽으로 다도해를 사이에 두고 완도군의 완도, 고금도 같은 섬과 마주 보고 있다. 온화한 기후의 강진군은 탐진강을 중심으로 질편한 들녘이 펼쳐져 있어 쌀은 그 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쪽빛 바다의 강진만이 남쪽 해안을 뚫고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 해산물도 풍부한 고장이다.

강진군의 땅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영암 땅에 들기도 하고 장흥 땅에 들기도 하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태조 때인 1417년, 남해안 지방에 일본 해적의 노략질이 부쩍 잦아지자 그것을 막으려고 광산군 송정읍에 두었던 병마 도절제사영을 이곳으로 옮김으로써 강진이라는 땅 이름이 생겨났다. 곧 전

라도 병영이 영암 땅에 들었던 도강 마을에 들어서자 장흥 땅에 들었던 탐진 고을을 끝어다 두 고을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강진’이라고 불렀다.

‘북 개성 남 병영 상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진 사람들은 장사로 유명하였다. 강진은 병영이 들어서면서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큰 군사도시가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병영에 드나들던 고을 수령과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벌여 돈을 벌었다. 또한 강진군은 예로부터 ‘부자고을’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지주가 많이 살아 천석꾼이 부자가 서른명이 넘었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동경에 유학한 학생의 수가 열명이었으며 서울에 유학한 학생의 수도 서른명이 넘었다고 한다.

월출산의 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탐진강의 가느다란 한 웃줄기가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일대를 지나 장흥 지방으로 넘어갈 듯 흘러들었다가 장흥 지방 일대를

흐르는 탐진강의 본줄기와 만난 뒤에 곧 다시 강진 땅으로 되돌아 나와 군동면 일대의 너른 들을 적시며 강진만으로 흘러든다. 이 군은 논과 밭이 너를 뿐만이 아니라 논 넓이가 밭 넓이의 세곱이나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한 해 쌀 농사의 잘잘못이 곧바로 그 해 농사의 성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에서 소개할 만한 것으로 딸기가 있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강진 딸기는 다른 지방의 것보다 훨씬 더 클 뿐만이 아니라 빛깔, 당도, 향기가 풍부하여 가락동 청과물시장에서는 이것이 다 팔리고 난 뒤라야 딴 곳의 딸기가 팔린다고 한다. 또한 고급 한우고기인 맥우(麥雨)도 강진의 특산품으로 꼽힌다. 알콜과 두충잎 등의 한약재 혼합사료를 사용해 육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강진맥우’는 서울의 유명백화점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

강진만을 끼고 있는 청정의 해안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 미역, 다시마, 굴, 바지락, 대합같은 것을 양식하거나 은어, 송어, 농어, 짙어, 가오리 같은 바닷고기를 잡거나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만 구강포를 지나 도암면 굴동마을을 통과해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오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었던 다산초당을 만날 수 있다. 다산은 그를 총애하던 정조가 죽자 신유교난에 휘말려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다산은 18년간의 유배생활 중 10여 년을 이 다산 초당에서 기거했다. 그는

이곳에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수령들의 학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부조리함의 실체를 파악했다. 다산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에 몰두해 실학사상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다산초당은 빛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게 드리운 나무숲 사이에 은근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 무너져 내린 초당을 1958년에 다산유적보존회가 재건하여 지금은 제법 큰 기와집이 되어 있다. 그 뜨락에는 옛날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녔을 법한 연못과 정약용이 차를 끓여 마셨다고 알려진 반석이 그대로 놓여 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그리고 서쪽에는 귀양살이의 애로를 달래며 해서체로 정석(丁石)이라고 새겨놓은 바위가 있다.

다산은 모함으로 쫓겨나 가족, 친지와 이별하고 20여 년 동안 서러운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실학사상의 연구와 저술로 승화해 낸 것이다. 정약용이 비록 강진 사람이 아니기는 하나 그의 학문적 체계를 세웠던 이곳을 강진 사람들은 큰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강진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 김윤식의 고향이다. 강진읍 탑동에는 영랑 김윤식이 살던 집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집 울타리에는 굵고 키가 큰 해묵은 동백이 몇 그루 줄지어 서있고, 넓은 뜰에는 은행나무와 유자나무, 배롱나무가 싱싱하게 가지를 뻗고 자란다. 그러나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안채의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랑채만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북의 소월, 남의 영랑’이란 말이 보여주듯 영랑은 가냘프고도 질긴 향토적 서정을 세련된 언어로써 엮어 이상적인 순수 낭만주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랑 생가에는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고려청자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진 사람들이 정약용이나 김윤식 못지 않게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이 고려자기 이야기이다. 세계 최고의 예술성을 인정받는 그 고려자기를 만들던 흔적이 강진에서 대규모로 발굴되어 옛날 도공들의 피땀 어린 삶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전북 부안과 함께 집단적 청자 도요지로 유명한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는 고려자기의 조각이 무진장 널린 가마터 이백 개쯤이 흩어져 있다. 사당리의 가마가 발굴된 것은 1973년의 일이다. 여기에 널려 있는 자기의 조각은 거의가 고려자기 중에서도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순청자 조각이다.

고려자기는 주로 순청자와 상감청자와 화청자로 나누는데 순청자는 고려자기의 초기 형태의 것으로 줄잡아 993년부터 1150년까지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순청자는 점토로 빚은 몸체에 오목 무늬나 돌출 무늬 따위로 장식을 한 다음에 초벌구이를 하고 다시 잿물을 발라 구워낸 것인데 그릇 온몸의 빛깔이 비색이다.

대구면 일대에 가마터가 많은 것은 이곳의 자연 조건과 관계가 깊다. 이곳은 도자

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흙과 맵감과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산을 두루 갖추고 있다. 게다가 강진만을 끼고 있는 만큼 물자의 수송을 뱃길에 기댔던 시대에도 도자기를 다른 지방으로 운반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운 고려청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구워낸 고려청자와 함께 서해안 뱃길로 해서 개성과 강화도의 고려왕조 지배 계급에게 바쳐졌다.

이곳의 청자 도요지는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으며 청자자료박물관도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청자의 고장인 강진은 매년 8월 초순 대구면 청자촌 일대에서 ‘청자문화제’를 개최해 고려청자의 신비를 재현하고 있다. 이 행사는 국가지정 10대 축제 중의 하나로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잔치 마당으로 자리 잡았다.

월출산 남쪽 기슭의 무위사는 강진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유적이다. 신라 진평왕 37년(617) 원효대사가 창건한 이 절은 네 번의 중건 끝에 1430년에 건립되었다. 무위사의 부속 건물인 극락전은 그 벽에 그려진 빼어난 그림 덕에 국보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극락전은 고려 후기의 경건함을 이끌어 내는 양식을 이어받았으면서도 조선 목조 건축 양식의 단아함을 한껏 지니고 있다.

극락보전 안의 후불 벽화는 고려 불화의 양식을 지닌 마지막 연대의 작품으로 이름이 높다. 이 불화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협시보살이 양 옆에 서고 그 위로는 6인 나한상이 구름 속에 싸이면서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고려시대 화려함과 섬세함

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구면의 남쪽 끝 마을인 마량리는 예전에 수군(水軍)이 주둔하였던 곳이다. 강진군과 완도군 일대의 해역에서 가장 먼저 수군진이 들어선 이곳은 제주도, 노화도, 완도, 소안도 같은 섬에서 기른 말을 받아 한양으로 올려 보내는 일과 그 일대의 목장을 관리하는 일 따위를 맡게 되어 꽤 번창해졌다. 그러나 마량리는 1895년에 진이 없어지자 한동안 보잘것없는 어촌으로 버림받았다. 그 후 완도군 일대의 수산 양식이 활발해지자 수산물을 집산하는 구실을 맡게 되었고 해방이 된 뒤에 제1종 어항이 되었다.

그로부터 마량항은 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그 일대의 섬 사람에게 파는가 하면 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따위를 모아 물으로 실어내는 요충지가 되었다. 지금의 마량항은 은빛 물살이 부서지는 아름다운 포구로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체취와 도심을 떠나온 강태공들의 여

유로움이 한껏 어우러져 있다.

마량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는 마치 날개를 펴고 앉은 새처럼 섬 두 개가 솟아올라 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 제172호인 까막섬이다. 옛날에 수천 수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와 까마귀처럼 까맣다하여 '까막섬'으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는 않으나 키가 10 미터가 넘는 후박나무를 비롯하여 갖가지 나무들과 넝쿨들이 어우러져 자라나 완도군에 있는 주도와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고 있다.

한편 병영면 삼인리에는 그 열매가 한약재로 쓰이는 비자나무가 육백살쯤 된 것이 있어 천연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강진읍에서 4km 떨어진 도암면 만덕리의 백련사 앞에는 우거진 동백나무 칠천 그루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이 동백나무는 흰 눈이 펄펄 쏟아지는 추운 겨울에도 빨간 꽃을 피워 올려 운치를 더하고 있다. ☺

